

김원겸의 엔터 파워맨 | 7 '1세대 한류제작자' 신현빈 루체엔터테인먼트 대표

“조정민표 K-트로트로 일본 엔카 시장 새 트렌드 만든다”

1999년 데뷔해 '헤어진 후에'로 선풍적인 인기를 얻은 록밴드 Y2K는 최초의 한일 합작그룹으로 이슈를 모았다. 한국인 멤버 고재근과 일본인 멤버 마츠오 유이치, 마츠오 코지 형제로 이뤄진 Y2K는 세장의 앨범으로 약 200만 장의 판매량을 기록했고, 2000년 일본 요코하마에서 열린 콘서트에는 8만 명이 몰렸다. 한국과 일본에서 크게 성공한 Y2K는 한류콘텐츠의 시발이었다.

Y2K를 기획한 사람은 루체엔터테인먼트 신현빈 대표다. 그는 Y2K에 1년 앞서 씨클이라는 한중일 합작 걸그룹을 론칭시켰다. 한국인 2명, 일본인 2명, 중국계 일본인 1명으로 이뤄진 틴에이지 그룹이었다. 첫 앨범은 30만 장이 팔렸다.

당시 누구도 생각하지 못했던 다국적그룹을 기획해 오늘날 케이팝의 초석을 세운 신현빈 대표. 남다른 도전으로 '1세대 한류 제작자'로 평가받는 그는 20년이 지난 지금 다시 새로운 도전에 나섰다. 흔히 한류하면 떠올릴만한 아이돌 그룹이 아니라 트로트로 일본 엔카시장을 두드리고 있다. 엔카도 트로트만큼이나 젊은 세대를 파고들지 못하면서 제대로 대접을 받지 못하는 상황인데도 신 대표는 케이팝의 새로운 지류를 내겠다는 것이다. 남들과 다른 행보로 승부수를 띄웠던 그가 이번에는 트로트에 주목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신현빈 대표를 그의 서울 성산동 사무실에서 만났다.

●과거-외국과 합작으로 한류를 선도하다

-당시 다국적그룹은 신선한 충격이었다. "1996년 일본을 방문했다가 아무로 나미에가 엄청난 인기를 누리는 걸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 우리는 그런 여성 아이돌 문화가 없었다. 일본 제작자들과 어울리며 씨클을 기획하게 됐다."

-왜 한중일 합작그룹이었나. "일본과 중국시장을 보았기 때문이다.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많고, 화폐가치도 높았다. 문화소비에 대한 욕구가 강했다. 중국 14억 인구도 한국문화를 찾을 것이라 생각했다. 그리고 당시 중국시장에 진출하고 싶었던 일본은 한국을 우회하려 했다."

-씨클은 오래가지 못했다. "앨범 2장으로 끝났다. 시향착오를 겪었다. 다음번엔 남자팀, 록 음악으로 하자 생각했다. 그래서 만든 Y2K는 처음부터 대박이었다. 하지만 일본 측 파트너의 욕심으로 팀은 깨지고 말았다."

신현빈 대표는 한일문화교류에 앞장 선 인물이다. 1997년 11월 일본 음악계 거물들을 초청해 서울 신라호텔서 '한일문화교류의 밤' 리셉션을 열었다. 이듬해 10월 정부의 일본 대중문화 유입을 허용하는 조치가 내려지자 유명 엔카가수 신노 미카를 한국으로 불러 KBS 1TV '가요무대'에 출연시켰다.

-어떤 자격으로 그런 행사를 열었나. "당시 난 음반업계 선두주자였다. 히트곡



신현빈 대표는 언제 어디서 만나더라도 항상 정장차림이다. 불별에 만난 이날도 정장이었다. 아무리 시간이 없어도 넥타이와 커피스버튼으로 격식을 차린다. 매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을 많이 냈고, 젊은 나이에 레코드 회사(동양레코드)도 차렸으니까."

그는 스물다섯이던 1985년 제대 후 신촌 뮤직 장교용 사무를 만나 매니저가 됐다. 당시 '명예'로 국민가수 대접을 받던 김수희의 방송매니저를 맡았다. 이수만, 최혜영의 방송일도 같이 했다. 서울 방매동 라이브 카페에서 김동환을 발견한 스물아홉엔 음반제작을 시작했다. 첫 앨범 '문어버린 아픔'은 엄청난 히트를 기록했다. 서른 살 때는 이승철 1집 '안녕이라고 말하지마'를 제작해 성공을 거뒀다. 막대한 수입을 올린 그는 음반유통·도매사 동양레코드를 세웠다. 유괴, 이력진, 신성우, 사준, 좌회전 등을 데뷔시켜 승승장구했다. 하지만 1997년 겨울 IMF 사태로 업계 부도가 잇달았다. 동양레코드도 부도를 피할 수 없었다. 하지만 그는 씨클과 Y2K로 가요계에서 변방없는 영향력을 과시했다. 하지만 문득 "너무 앞만 보고 달렸다"는 생각에 2003년 돌연 미국으로 떠났다. 미국에서 다양한 사업을 했지만, 매니저가 천직임을 새삼 깨닫고 7년 만에 귀국했다. 2012년 신사동호랭이를 만나 걸그룹 EXID를 제작했다. 중국인 멤버가 포함된 남성 7인조 엠파이어도 론칭시켰다.

Y2K·씨클 등 한류 콘텐츠의 시초 조정민에게서 트로트의 미래 발견 엔카계 대부 나카무라 타이치 참여 일본 데뷔곡 '아빠'로 가능성 확인 중국 시장까지 열리면 대박 날 것



조정민

●현재-트로트로 한류의 새 지평을 열다

트로트를 하게 된 건 우연이었다. 2014년 어느 날 가수 설운도의 전화를 받고 조정민은 만났다. 만나보니 그가 출연했던 엠넷 '트로트 엑스'에서 본 장면을 기억할 수 있었다. 아무로 나미에와 이마가 닮았고, 피아노 치는 모습을 마음에 두고 있던 참이었다. 당시 조정민은 여러 메이저급 기획사로 부터 러브콜을 받아둔 상태였다.

-조정민과 함께 하게 된 결정적 한마디는. "외국시장에 나가자고 했다."

-트로트가 외국에서 통하겠느냐는 회의적인 시선이 많다. "조정민은 일본에서 먹힌다는 확신이 있었

다."

조정민의 엔카 진출을 위해 손잡은 파트너는 '엔카계 대부'로 불리는 나카무라 타이치다. 그가 만든 곡이 500곡에 이르고, 수시로 NHK '홍백가합전' 심사위원을 맡은 인물이다. "타이치도 '지금 이대로의 엔카는 안된다'고 했다. 그가 말하는 '엔카가 가야할 미래', 내가 가고 싶은 '트로트의 미래'가 같았다."

둘의 생각은 이렇다. 트로트나 엔카가수는 누구보다 음악적 실력이 뛰어나야 하고, 아이돌 걸그룹 멤버보다 더 예쁘고 섹시해야하

고, 그래서 사람들이 한 단계 위로 보게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격조 있는 '퓨전 트로트' '퓨전 엔카'로 업그레이드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조정민은 음악적 실력은 물론 170cm 장신에 볼륨 있는 몸매로 '비주얼'도 뛰어나다. 피아노전공자로서 기악 능력도 출중하다. 신 대표나 타이치에게 조정민은 '업그레이드 트로트' '업그레이드 엔카'의 조건에 부합하는 재원인 것이다.

조정민은 4월 일본에서 데뷔곡 '아빠'를 발표했다. 나카무라 타이치가 한국인 친구의 슬픈 가족사를 듣고 만든 곡이었다. 최근 오사카 페스티벌홀에서 열린 조정민 콘서트에 나카무라 타이치는 노래에 얽힌 사연을 들려주고 조정민을 소개했다. 조정민은 무대로 나가 피아노를 쳤다. 그리고 '아빠'를 불렀다. 많은 관객들이 눈물을 흘렸다. 이 장면을 지켜본 신현빈 대표는 더욱 확신을 갖게 됐다.

●미래-한류의 다변화를 예고하다

-일본에서도 엔카시장이 암울한 상황 아닌가. "조정민으로 인해 트로트뿐만 아니라 엔카 시장이 살아날 수 있다. 일본 내에서도 엔카에 대한 자성도 일어나고 있다. 음악은 패션이다. 트렌드를 만들어야한다. 하지만 트로트와 엔카는 머물러 있다. 옛날 음악으로만 여긴다. 그 생각을 바꿔놓아야 한다."

-어떻게 바꿔야할까. "퀄리티를 높여야한다. 음악적 완성도는 물론 의상과 행동에도 기품을 갖춰야 한다. 행사용 음악으로 마구잡이로 해선 안 된다."

-트로트가 일본 외 지역에도 어필할 수 있을까. "중국도 우리와 정서가 비슷하다. 중국시장이 열리면 트로트는 다시 살아날 수 있다. 조만간 조정민을 둘러싼 다양한 일들이 중국에서 펼쳐질 것이다."

실제 조정민은 남미에서도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SNS를 통해 그의 무대가 소개되면서 팬들이 늘어나고 있다. 푸에르토리코, 콜롬비아, 멕시코 등지의 팬들이 30명 안팎의 그룹을 이뤄 1년에 두 번 정기적으로 한국을 방문한다. 조정민은 이들을 위해 팬미팅을 갖는다. 조정민의 노래, 예능에서 한 발 언은 현지에서 한국어 교재로 사용된다.

-정부의 노력도 중요하지 않나. "정부뿐만 아니라 대기업의 협력도 필요하다. 대기업들은 한류스타를 통해 자사 상품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다. 이미 한류로 인해 한국에 대한 호감도 높아지고 있다. 서로 윈윈 할 수 있다."

-트로트가 설 자리가 없는 게 현실이다. "트로트가수가 출연하는 방송프로그램은 KBS 1TV '전국노래자랑'밖에 없다. 광고도 들어오지 않는다. 장르를 떠나 좋은 가수들은 그에 걸맞은 대우를 받아야 한다."

-방탄소년단이 빌보드 1위를 하는 시대가 왔다. 한류는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차분히 세계적인 네트워크를 갖춰서 프로모션을 잘하면 방탄소년단 같은 팀은 계속 나온다."

엔터테인먼트부 부장 gymmy@donga.com

연예 뉴스스타이션

세븐, 자카르타AG 성화봉송 주자로

가수 세븐이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 게임의 성화 봉송 주자로 나섰다. 16일 아시안게임 공식 후원업체 케이스타그룹에 따르면 세븐은 전날 자카르타에서 진행된 성화 봉송 릴레이에 참여해 총 10km 중 500m 구간을 완주했다. 행사가 끝난 후 세븐은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 성화 봉송 주자로 참여하게 돼 영광이다. 아시아인 화합의 장이 되기를 바라며 국가대표 선수들의 선전을 기원한다"고 말했다. 세븐은 팔렘방에서 열리는 아시안게임 개막식과 아시안 페스티벌에도 참여할 예정이다.

이하니, 미국 진출? 공리와 한솔밥

연기자 이하니가 할리우드 진출을 노린다. 이하니 소속사 사립엔터테인먼트는 16일 "이하니가 최근 미국 에이전시인 윌리엄모리스엔터테인먼트(WME)의 필립 선, 매니저먼트 사인 아티스트인터내셔널그룹(AIG)의 대표 데이비드 영거와 각각 에이전트·매니저먼트 계약을 했다"고 밝혔다. WME에는 영화감독 박찬욱과 봉준호, 배우 배우나, AIG에는 중국 배우 공리와 량쯔충(양자경)이 소속돼 있다. 이소영 대표는 "할리우드 활동에 가장 적극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판단돼 함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안중근 삶 재조명 드라마 '영웅' 제작

독립투사 안중근의 삶을 재조명하는 드라마가 제작된다. '영웅-푸른 영웅의 시대'라는 제목의 24부작 드라마는 '아이리스' '크리미널 마인드' 등의 양윤호 PD가 연출을 맡고, 총 제작비 300억원을 투입해 중국과 북한에서 촬영될 예정이다. 연말부터 사전 제작에 돌입해 내년 방영이 목표다. 제작사 아크378은 16일 "도련님에 가까운 삶을 살던 안중근이 독립투사 안중근으로 변모해가는 일대기를 그려낼 예정이다. 드라마를 통해 남북한과 해외동포들의 민족 정체성 정립에 기여하고 싶다"고 말했다.

블랙핑크 유튜브 구독자 1000만 ↑

걸그룹 블랙핑크의 유튜브 계정 구독자 수가 1073만여 명으로 1000만 명을 넘었다.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는 16일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케이팝 그룹으로는 최고 기록이며 케이팝 가수 중에는 싸이 다음으로 높은 수치"라고 밝혔다. 블랙핑크는 구독자 수 1000만 명을 돌파해 최근 유튜브로 부터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를 받았다. 다이아몬드 크리에이터 어워즈는 유튜브가 일정 구독자 수를 넘긴 운영자에게 주는 '유튜브 파트너 어워즈' 최고 상으로 인기 유튜버를 상징한다.

이광수 생일 기념 중 팬들 나무 기증

연기자 이광수의 팬들이 중국 서부 사막화 방지를 위해 나무를 기증했다. 16일 이광수 소속사 킹콩 by 스타샵에 따르면 7월 이광수 생일을 맞아 중국의 팬들이 나무 1000그루를 기증했다. 소속사는 "팬들은 평소 아이들을 위해 기부하는 이광수의 모습에서 긍정적인 영향을 받고 함께 선행을 실천하기 시작했다"고 말했다. 이광수는 만 19세 이하 소아 환자의 치료비 지원을 위해 서울의 한 병원에 꾸준히 기부하고 있으며, 2016년 지구촌 어린이 구호 캠페인에도 참여한 바 있다.